

韓國獸醫學術의 發展過程

姜 冕 熙

高麗大學校

1. 東洋獸醫學의 개념

동양 문명의 기원은 중국에서 구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 많으나 수의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수의술도 중국에서 한반도로 전래되고 다시 일본에 이것을 전수하게 된 것이다.

중국 문헌을 통해 볼 때는 일찌기 黃帝時代(4千數百年前)의 馬師皇을 동양 獸醫의 鼻祖로 삼고, 가축을 치료한 시초로 삼고 있다.

「新刻針醫參補馬經大全」의 問脈色論에 「馬師皇者 黃帝時 明牧之聖師也 生而聰明 長而靈通 能相馬牛之形神 診馬牛之脈息察五藏之虛實」이라 하여 馬師皇이란 사람이 馬醫術에 能通하였을 뿐만 아니라 相馬에도 神通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대(周以前)에는 문명이 整頓制度化되지 못하고 또한 일정한 명칭도 없었으나, 적어도 동양에 있어서는 수의술이 대단히 오래 전부터 시작되고 그 주대상은 말과 소(牛)였다는 것만은 짐작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혼돈시대가 약 천여 년을 지나고 周의 武王이 건국한 후 문물과 관제가 제도화하는 가운데 疾醫(內科)·瘍醫(外科)·食醫(衛生) 등과 더불어 獸醫 등의 四科가 설치되었던 것인데 人醫術이나 獸醫術의 南象(濫觴)은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시대보다 훨씬 고대로 올라갈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인류가 자신의 신체에 이상 상태를 인식하고 경험에 의하여 그 치료법을 발견하거나 또는 미신적으로 여러가지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한 때가 정확히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때 가축이 있었다고 하면, 그 수단과 방법을 가축에게도 응용하였으리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周代에 와서 이것이 제도화할 때 獸醫師가 다른 人醫師에 속한 科와 더불어 동등한 위치에서 중요시되었다는 것은 이와 같은 추측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여하간 한자로 “獸醫”란 용어는 距今3,000년 전으로 올라간 周代 초기에 제정된 어휘인 동시에 官職名이었던 것이다.

周禮天官에 「醫師, 衆醫之長」이라 하였고 그 밑에 「獸醫下士四人 註 獸牛馬類 疏 此職云 主治牛馬 未必治其野獸」라 하여 獸라 함은 牛馬를 지칭하는 것이요, 野獸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고 卷五의 獸醫條에는 「獸醫 掌療病獸 疏 此醫 唯療家畜 不療野獸, 獸畜義通 今以畜解獸 故畜獸連言之也」라 하여 위와 같이 畜을 獸로 同意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獸醫의 “獸”字는 家畜을 意味하는 것이지, 家畜 以外的 動物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따라서 獸醫는 가축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그의 본분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양에 있어서는 獸醫術은 醫術의

일분과로서 근원을 발하고, 牛馬를 비롯한 소 위 六畜을 치료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2. 韓國 原始 獸醫術

아득한 옛날에 대륙에서 출발하여 동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한 집단이 있었는데 그 목적인 곳은 日出處의 震이라는 곳이었다. 그네들은 스스로 「붉은」이라 이르고 후에 漢字로 「白」이라고 썼다.

동으로 동으로 전진하는 동안에 한 大山에 이르러 神都를 정하고 그 주변에 안정할 땅을 이룩하니 이곳을 「불」·「나라」라고 하였다 한다.

「불」 또는 「나라」마다 백성을 위하여 곡식을 잘되게 하고, 병을 다스려 주고, 선악을 가려주는 「당굴」이라고 하는 어른이 있고, 그 우두머리로 큰 어른 한 분이 있었으니 일컬어 「얼검」이라 하였는데 후에 檀君(혹은 壇君) 王儉이라고 쓰게 되어 이 분이 곧 보통 말하는 檀君이다.

三國遺史에 실린 檀君에 관한 설화를 보면 桓雄天王이 風伯·雨師·雲師等 卒徒 삼천명을 거느리고 太白山頂 檀樹 밑에 내리시니 이것을 일러 「神市」라고 하였다. 桓雄天王은 穀, 命, 病, 刑, 善惡等 五大綱目으로써 三百六十餘條에 이르는 인간사회의 모든 일을 治化하시는데 때마침 一熊一虎가 있어 洞穴에서 살고 있으면서 늘 桓雄에게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였다. 그래서 燧와 마늘 二十枚를 주면서 가로되 「이것을 먹고 日光을 100일 동안 보지 않으면 사람으로 化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곰과 호랑이는 이것을 먹고 곰은 37일을 忌 하여 女身이 되고 호랑이는 능히 忌하지 못하여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熊女가 配匹이 없어 檀樹下에서 孕胎하기를 축원하였다. 雄이 假化하여 妊娠케 하여 아들을 낳으니 아이를 「檀君王儉」이라 하였다.

이 설화는 역사적인 상식에 속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이것을 거론하는 것은 獸醫分野와도 관련이 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醫史學界에서는 桓雄天王이 人間世事를 治하심에 있어서 그 하나로 국민의 질병을 治方하는 모든 의료행위를 主宰하신 까닭에

韓土醫藥의 創始者가 된다고 보고 있다. (金斗鍾 韓國醫學史 40面)

神市時代에 있어서 사람의 糧食으로 五穀을 主함에 있어서 가축을 사육케 하지는 않았던가 도 의문이다.

至上權能을 가진 神이 국민에게 가축을 사육케 하고 또 그 질병의 治方도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 설화에서 靈艾(쑥)와 蒜(마늘)이 사용된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동물(곰과 호랑이)이었다는 점에서 쑥과 마늘은 獸醫藥品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桓雄天王은 사람·醫藥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獸醫藥의 창시자로도 볼 수 있다.

위의 설화가 과학적이지 아니라고 할지 모르나, 「醫」字 자체가 원래 「醫」에서 변형된 것으로서 무당(巫)을 나타내듯이 현재 우리들의 低級民俗中에 남아 있는 바와 같이 옛적에는 「굿」·「푸닥거리」 등 샤만教의 (Shamanism) 방법 이 행하여졌으며 이 일을 맡아 보는 무당이 病魔를 제거하기 위하여 穰病術·驅鬼法을 행하였다.

原始時代에 있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러한 식의 설화가 民俗史의 첫머리를 차지하고 있다.

3. 三國時代의 獸醫學

(1) 中國獸醫學의 영향

人醫學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獸醫學에 있어서도 韓土固有의 巫呪術의 方法에 일찍부터 大陸의 論理的인 獸醫學의 영향을 받아서 삼국시대에는 이것을 日本에까지 移植하였다. 大陸의 獸醫學은 전술한 바와 같이 멀리 전설시대인 黃帝 때의 인물인 馬師皇을 鼻祖로 하고, 秦나라의 伯樂, 周나라의 王良 등으로 이어지는데 그 근본 원리와 내용은 人醫學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다시 종래의 주술적(呪術的) 방법이 혼합되고 또 불교의 전파에 의한 印度獸醫學의 영향을 받아 隨唐獸醫學으로 발전한 것이다.

의학에 있어서 吳人 知聰이 561년 (高句麗平原王 3년 隨文帝天嘉 2년)에 内外典藥書와 明堂圖 등을 가지고 高句麗를 거쳐 日本(欽明主 22년)에 歸化한 매가 漢方醫學의 方書가 공공연하게 수입된 시초라고 한다. 그 내용은 黃帝素問鍼經 등을 주로 하고 있는데 수의관계에도 거의 같이 응용되었을지도 모른다.

더우기 知聰은 의학 관계 뿐만 아니라 日本에 우유음용법(飲用法)을 전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축산과 수의 부문에도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는 인물인 동시에 수의학 지식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것이다.

① 漢獸醫學의 원리와 내용

한방의학이나 수의학의 원리를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이다.

黃帝內經素問에 「사람의 陰陽은 外가 陽이 되고 內가 陰이 되며, 人身의 陰陽은 陰이 陽이 되고, 背(腹)가 陰이 되며, 臟腑에 있어서는 肝·心脾·肺·腎 등 五臟이 陰이 되고, 膽·胃·大腸·小腸·膀胱·三焦의 六腑가 陽이 된다는 것이고, 水·木·火·土·金을 五行이라 하여 水는 木을 낳고, 木은 火를 낳고, 火는 土를 낳고, 土는 金을 낳고, 金은 水를 낳는다는 相生說을 根幹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의학이나 수의학에서는 身體各部를 陰陽으로 구분하고 5장6부(五臟六腑)의 생리적 기능을 五行에 관련시켜서 설명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百病의 診脈도 음양오행설에 바탕을 두어 이루어지고, 침구(鍼灸)의 경락(經絡)에 있어서도 12경락을 구분하여 1년의 12月, 12辰에 부합되게 하며 경락의 맥수(脈數)를 1년의 365일에 일치케 하는 등 음양오행의 철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한 예를 黃帝와 馬師皇의 문답(元亨療馬集)에서 들어보면 黃帝가 물기를 「五行克이 무엇이냐」고 하니 馬師皇이 대답하기를 「水가 金을 만나면 伐(伐)고, 火가 水를 만나면 滅(滅) 것과 같이 만물이 이 원리에 따라 어긋남이 없다」고 하니, 다시 물기를 「그러면 말의 질환의 식별 방법은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馬師皇은 「도끼자루를 베는데는 도끼가 아니면 안되듯이 병을 진찰하는데는 脈色이 아니면 알 수 없다」(伐柯者 匪斧而 不能克 察病者 非脈色 何

能知之)라고 하여 診脈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다.

② 漢獸醫學書

수의학 서적으로서는 前項에서 설명한 黃帝와 馬師皇과의 문답 내용, 伯樂의 名堂論, 東溪와 曲川の 문답, 그리고 大元 延佑年間의 趙澤中이라는 獸醫의 說 등을 실어 獸醫方書로서 집대성된 것으로 元以後 1310~1336년에 출간된 「新刻馬經大全」과 淸朝의 乾隆元年(1736)에 발행된 六安州 喻本之의 「元亨療馬集」이 쌍벽을 이루고 있고 藥學書籍으로서는 그 대표적인 것이 本草學이다.

馬經大全은 春夏秋冬 四冊으로 되어 있는 방대한 것으로서 그 내용에는 去勢法과 強直症, 그리고 混睛虫 등과 같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現代獸醫術에 못지 않는 科學的인 方法이 개발되어 있다.

元亨療馬集은 6 권으로 되어 있는 말 병과 그 치료에 관한 것으로 病例의 圖說과 함께 소와 낙타의 질병 치료법을 설명한 牛駝經이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三國時代의 本草學은 魏·晉으로 부터 南北朝時代의 中國本草學의 수입으로 인하여 그 당시의 高句麗 및 百濟에서 產出된 허다한 약재(藥材)가 피차간에 交역(交易)의 대상으로 왕래되고, 이에 관한 지식의 교류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문헌적 기록으로서는 南朝 때의 梁나라 陶弘景의 本草經集註와 唐初의 新修本草 등이 있고, 국내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자료로서는 日本으로 건너간 百濟醫人들 중에 本草學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本草學은 물론 사람의 질병 치료에 관한 약재의 설명이지만 이것이 가축의 질병에도 이용되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漢獸醫學의 三國時代에 있어서의 輸入, 應用, 發展 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우리 나라 文獻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2) 印度 및 西域 獸醫學의 영향

高句麗의 獸醫學이 불교의 傳來에 따라 印度 獸醫學의 영향을 많이 보았다는 사실은 人醫學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이다.

삼국시대 이전에 있어서는 질병이 발생할 때에는 경험적 치료 방법 이외에 神을 위로하는 내용의 무술적(巫術的) 방법과 어느 정도의 한방적인 치료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사람에 있어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家畜의 질병도 佛법에 의하여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古代印度醫學은 말하자면 불교적인 僧侶醫學에 속한 것으로 이것 역시 기도 주문(呪文)과 같은 신비적 요법(神秘的療法)이 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波羅門教時代에 이르러 印度 의학의 中始祖라고 일컫는 月支國카니스카(Kaniska)王의 侍醫이던 카라카(Charaka)가 기원전후에 나타나서 인도 의학의 면목을 새롭게 하였는데 특히 인도 고유의 풍부한 약재의 사용과 아울러 크게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본질적으로는 종래의 僧侶醫學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즉 중생(衆生)은 生, 老, 病, 死의 四大苦를 비롯한 모든苦的 세계에서 삶으로 인생의 세계에는 病苦를 면할 수 없는 因果가 있고 그 病苦는 「地」, 「水」, 「火」, 「風」의 4元素의 작용으로 일어난다는 이른바 四大不調說을 주장한 것이다.

이 四大不調說은 東醫寶鑑에 四太不調說에 근거를 둔 四大成形論이 소개되어 있고, 天主實利學에 관련이 있는 李睟光의 芝峰類說(권 7)에도 이와 같은 句節이 기재되어 있어 印度 醫說이 우리 나라 醫學과 醫術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나, 三國의 文獻에 이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어 그 상황을 상세히 알 수는 없으나 당시 印度醫說이 미친 영향과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 같은 惠慈에 의한 僧獸醫學의 日本移植으로 그 영향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첨가하여야 할 것은 近代西洋醫學이나 獸醫學의 始祖로 알려진 그리스 醫聖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의 醫書와 前記 印度의 카라카(Charaka)의 醫錄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발견된다고 한다. 따라서 BC 1세기경인 카라카의 저술과 그보다 4~500년 전인 히포크라테스의 저서 사이에 이와 같은 유사점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醫學이 印度醫學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뜻한다. 여하간 삼국시대

의 우리의 醫學 내지 獸醫學은 이상 논한 바와 같이 黃帝 때부터 내려온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한 中國大陸에서 발전된 隨唐獸醫學의 영향을 받고, 불교의 전래로 역시 中國을 통한 印度 醫說의 영향이 혼입되고, 이에 다시 「페르시아」 서역지방, 그리이스 의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페르시아 및 서역지방은 中古에 있어서 東西 교통의 요충지대로서 이 지방에서 산출되는 의약품 및 그 원료들이 東西를 통하여 왕래된 것이다.

藥劑中에 축산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지금의 「알팔파」, 즉 「苜蓿」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풀은 현재 牧草中의 王者로 군림하고 있는 荳科의 草本으로 페르시아, 즉 「이란」이 그 원산지인데 페르시아 戰役 당시 印度로 전해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의 獸醫藥品으로서 이용되었는지는 기록이 없으나, 陶弘景의 「名醫別錄」에는 菜類의 上品으로 되어 있어 「사람의 속을 편하게 한다」고 되어 있다.

苜蓿은 일명 連枝草, 우리 말로는 「거여목」 또는 「계목」이라고도 하는데 三國史記(卷 39) 職宮中에는 蓿典이라는 관청이 설치되었고, 新羅 때에는 사료로 많이 재배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金) 韓國醫學發展에 대한 구미 및 西南方醫學의 영향 p. 2) 알팔파(Alfalfa)는 우리 나라 古代馬產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三國時代 獸醫學의 日本移植

阿直岐가 百濟에서 畜産이나 獸醫技術部門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王仁과 더불어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임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 이 두 사람은 百濟 近肖古王(346), 近仇王(376) 때의 사람으로 다같이 經書에 능통하고 論語와 千字文을 갖고 日本에 가서 日本의 應神天皇의 太子의 스승이 되어 日本의 文化를 깨우치는데 중요한 계기를 만든 공로자들이다.

그런데 阿直岐는 經書에도 정통하였지만 養馬技術도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百濟에서 日本으로 갈 때 良馬 二匹을 갖고 가서 선사하고 宮中에서 그것을 기르는 일을 맡아 보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말의 養育과 겸하여 治療技術도 어

느 정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推理하여 무방할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日本書紀나 古事記에 실려 있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이며 韓國의 正史나 野史에서는 發見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正式으로 韓土의 獸醫術이 日本에 전파된 것은 人醫의 그것보다 훨씬 늦어 日本의 제33代 推古主 3年 5月頃이라고 한다.

즉, 高句麗의 惠慈法師가 日本에 가서 聖德太子의 스승이 되면서부터라고 한다. (白井 日本獸醫學史 10) 惠慈法師는 유명한 惠聽과 함께 596년 日本의 法興寺가 낙성된 후 거기서 살면서 布教한 高僧이지만 兼하여 獸醫技術에도 능통하였다. 즉, 白井에 의하면 「高麗(高句麗)의 僧 惠慈가 來朝하여 聖德太子(厩後皇子)의 侍臣에 橋猪彌라는 者가 있어 惠慈에게 療馬法을 배울 것을 命名받아 이후 歷世 그 法을 전하여 이것을 ‘太子流’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 글로써는 侍臣인 橋가가 獸醫術을 배운 것으로 되어 있으나 日本의 長尾博士는 그의 연구를 통하여 聖德太子가 獸醫學을 直接 배웠다고 전하고 있다. 여하간 日本에서는 太子流라는 것이 神話的인 獸醫術에 관한 것을 除하고 實際 근거있는 기술적인 療法이 行하여진 獸醫術의 淵源으로서 聖德太子로 因하여 이것을 “太子流”라고 하고 그 스승이 바로 韓土에서 건너간 惠慈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前述한 阿直岐의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三國史記 같은 데도 惠慈가 日本에 갔다는 말도 없고 또 現今의 一般歷史家들도 日本文獻을 引用하여 論하되 佛家로서만 研究하고 그 밖의 側面은 전혀 度外視하고 있다.

阿直岐나 惠慈法師를 獸畜學的인 側面에서 볼 때 우리 나라에서도 적어도 獸醫學史上 어떤 위치가 부여되지 아니하면 아니될 듯하다. 阿直岐는 차치하고라도 惠慈法師는 三國時代에 나타난 唯一最初의 獸醫學者로서 神話時代의 說話를 제외한다면, 비록 그의 學統이 전해지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에 있어서 獸醫學의 創始者가 될 수 있을 듯하다.

4. 高麗時代의 獸醫學

三國時代에 있어서 日本에 傳授되어 日本獸醫學의 창시에 공헌하였던 고구려 獸醫學은 百濟와 新羅에 전파되고 統一新羅로 계승되었다 함은 전술한 바와 같으나, 발달된 統一新羅時代의 醫學的 知識과 術法은 다시 高麗로 그 傳統이 이어짐은 당연한 일이다.

高麗時代에는 다시 宋元의 獸醫學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自身의 經驗을 土臺로 한 獨自의인 獸醫學이 싹트기 시작하였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高麗朝에서는 建國初에 民心을 수습하고 國權을 견고히 다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터이지만 특히 國防의 基幹이 되는 馬產에 重點을 두었던 관계로 이에 관한 行政機構와 國營牧場같은 大的인 產馬施設도 擴充되는 모습이 三國時代에 비하여 具體的으로 文獻에도 나타난다.

(1) 獸醫制度

馬政과 牧畜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司僕寺 典厩署 奉車署 등이 있었는데 司僕寺에서는 馬政에 관한 사항을, 典厩署에서는 一般家畜의 사양에 관한 일을, 그리고 奉車署에서는 王室의 車馬에 관한 일을 각각 관장하였다.

한편, 產馬施設로서는 國初부터 各地에 國營牧場을 설치하고 毅宗 3年(1159)에는 오늘날의 飼養標準에 해당하는 「畜馬料式」이라는 것을 제정하여 馬匹 사육에 科學化를 도모하였다.

이와 같이 產馬를 위주로 한 家畜 사양에 힘을 기울였으므로 必然的으로 그 疾病을 예방 치료하는 獸醫學의 知識과 技術普及에 관심이 컸을 것이나, 官制에서는 獸醫에 관한 제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 상세한 내용을 잘 알 수는 없으나, 獸醫 또는 獸醫博士라는 名稱과 制度가 高麗 때 설치되었다는 사실은 韓國獸醫學史上 劃期的인 일이다.

① 獸醫博士와 獸醫

원래 博士라는 명칭은 우리 나라에서 三國時代 때 教授職에 대한 官名으로 사용되었는데, 高句麗에는 太學이라는 學校에 太學博士가 있었고, 百濟에서는 詩書·易·禮記·春秋의 五經博士 以外에 各技術分野에 따라 博士라는 명칭이 있었다.

高麗 때에는 國子監이라는 중앙교육기관에 國子博士·太學博士·四門博士·書學博士·算學博士를 두어 각 專門分野를 교수케 하였고, 李朝 때에는 成均館·弘文館·奎章閣·承文院 등에 역시 교수의 임무를 맡은 博士의 직책을 두었었다.

高麗時代에는 太祖가 中央에 學校를 세워 獸科·卜科라는 것을 併設하였는데 獸科에서 무엇을 교육하였는지는 분명치 않다. 文宗 30年(1076)에 비로소 “獸醫博士”라는 官職이 12 牧各科에 배치되어 獸醫教育을 실시한 일이 있다. 이것이 “獸醫”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獸醫教育이 실시된 最初의 明文記錄이다. 그리고 高麗末葉인 辛禔 14年(1338)에 趙俊이 時務를 진술한 가운데 “司僕寺에 獸醫 5人과 驅史 30人을 두고, 그 나머지는 파하라”고 건의한 사실에서 獸醫라는 직책이 그 以前부터 존재하여 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어쩌면 三國時代에도 이미 獸醫라는 것이 明文上에 나타나지 않을 뿐 실제로는 존재하였을지도 모른다.

② 日官과 馬祖壇

原始社會 때부터 日蝕·月蝕·流星·彗星(혜성)·地震 등 大自然의 변이는 곧 人間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들 自然界의 현상으로 사람 또는 國家의 吉凶을 점치게 되었다. 사람의 疾病 뿐만 아니라 家畜의 疾病같은 것도 自然의 異變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래서 高句麗에서는 日者라는 官員이 있었고, 百濟에는 日官部라는 관청이 있었다. 三國時代에 있어서 日官이 家畜의 疾病과 관련된 기록은 발견할 수 없지만 高麗 때에 내려와서 日官이 家畜의 疾病과의 관련을 찾아볼 수 있다.

즉, 仁宗(17代) 20년(1142), 西南部地方에 牛馬의 疾病이 大流行하였을 때 日官을 파견하여 그 終熄을 빌었다. (西南大牛馬疫 日官派遣祈禳)는 高麗史의 기록이다.

이와 같이 高麗時代에 家畜의 疾病 특히 流行病이 창궐할 때에 日官의 기도에 의존하여 그 종식을 기대하였다는 것은 곧 전술한 바와 같이 大自然의 異變과 疾病의 발생에 깊은 관계가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말(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天體는 天馬驄星(房星)

이다.

이 별은 一名「馬祖」라고도 하며 말의 祖上으로서 말에 관한 모든 일을 左右하는 별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말의 疫病의 치유를 위하여 이 별에 祭祈를 올리는 일도 高麗時代에 시작되었다. 이것을 馬祖祭라고 하며 祭祀를 올리기 위해서 만든 壇을 馬祖壇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高麗時代에 있어서도 近근대적 사회의 일반적 습속인 巫呪와 卜術의 方法이 사람의 생활 모든 부문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獸醫部門에 있어서 家畜의 疫病의 大流行 때는 물론 一般疾病의 예방과 치료 方法에 있어서도 사람에서 하는 것과 거의 같은 迷信的 方法이 국가기관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공공연히 행하여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外來獸醫學의 영향

三國時代에 隨唐醫說의 영향을 받아 오던 獸醫術은 高麗에 그대로 계승되어 高麗初期의 獸醫界를 지배하였을 것이나, 中期以後(8代 顯宗—高宗때까지)에는 唐의 醫術을 계승 발전시킨 宋과 元의 醫說이 흘러들어 오고, 또 한편으로는 “아라비아”와의 교섭으로 西域 및 南方의 醫藥品의 교류가 많아지고, 또 더욱 왕성하여진 佛敎의 세력으로 인한 印度醫說의 보급에 따라 高麗의 醫學이 이들과 결합하고 自身의 경험적 지식을 加味하면서 自主의인 기운을 들어내기 시작한 것 처럼, 獸醫學도 정도와 규모 그리고 중요성에 차이는 있었을 망정 그 發達의 과정은 人醫學의 그것과 軌道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3) 高麗獸醫學의 內容과 自主性

高麗時代의 獸醫學의 內容과 정도는 當時의 文獻의 資料의 欠乏으로 상세하게 논하기는 어려우나, 麗末의 學者요, 政治家들인 趙俊·金士衡·權仲和·韓尚敬 그리고 房士良 등의 관여로 이루어진 「新編集成馬醫方」 「牛醫方」에 의하여 그 대강을 살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獸醫學成書인 이 책은 비록 그 발간 연대가 李朝 定宗年間이라 할지라도 編者들이 갖고 있던 지식과 의거한 資料는 高麗時에 사용되던 것일 것임으로 본서는 高麗末의 獸醫學의 內容을 담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방할 것이다.

또한 房士良의 序文에 따르면 「이 책은 伯樂

의 經을 經으로 하고 元朝의 訣을 緯로 여러 서적의 좋은 부분을 취하고 東人已試의 術을 採用하여 편찬한 것이다」고 하였다.

本書의 內容은 거의 前記「新刻馬經大全」같은 것에 의거 편찬된 것이며 末尾에 東人經驗牧養法, 東人經驗方 등이 収録되어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이 책이 성립되기 이전에는 이 책의 原本인 전기 中國書籍들의 內容이 응용되었을 것이 틀림없으며 東人經驗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內容이 획기적인 대단한 新知見은 아니나 여하간 이것이 수록되었다는 사실은 곧 高麗獸醫學의 自主的發展의 기운이 싹텄다는 증거이며 수의술에 관한 驗驗의 方法이 그 이전부터 많이 實用되어 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즉 東人經驗方의 內容에는 馬醫方中에 한 項目을 설치하여「東人經驗牧養法」이라 하고 주로 乘用後의 사양관리방법을 기술하고, 食慾不振에 대한 處方이 실려 있는 정도의 간단한 것이고, 牛醫方에도 그 末尾에「東人經驗治卒喘嗽」라는 項目을 두고 그 안에 다시 脹門病으로서治牛氣脹方(고창症)이라 하여 여러 경우의 약물치료법을 기재하고, 특히「牛眼骨後氣脹方」이라는 항목에서는「季肋後三仙骨前宛中虛處以針寬刺用竹筒插之氣出則愈」라 하여 고창증치료에 이미 오늘날의 套管針應用과 같은 方法을 創出하기도 한것 같으며 그밖에 牛糞血, 尿血部門에 관하여 治療法을 기재하고 있는 정도로 그 분량은 극히 적은 편이다.

한편 이 책의 서문에서 房士良은 從來의 無識하고 禪者들의 손에 맡겨졌던 鍼久 또는 迷信의 方法에 의한 獸醫術이 당시의 畜産에 얼마나 害毒을 끼쳤던가를 말하고 公式的인 獸醫와의 對立 力의 극심함을 말하고 牛馬醫方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고 이 책의 간행으로 自主性과 함께 獸醫術의 科學化를 강조하고 있다는데 重要性을 역설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或努逸之不中基體。或水草之不適其宜。一有病前遂委托無知賤隸之手其愈幸耳非其巧也便稱之日獸醫後不知經絡敢望其明箭穴審藥性以適其病也耶嗚呼詛針妄藥斃喪奇手非徒害命抑亦傷財」云云.

(5) 朝鮮朝時代의 獸醫學術

朝鮮朝 革命後에도 民心을 收拾하고 國防을 튼튼히 하려는 노력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력히 추진되었고 國防은 곧 馬政에 있었으므로 產馬는 李朝初期에 있어서 우리나라 歷史上의 黃金期를 이룬다. 江華島와 江原道一帶에 설립했던 巨大한 馬牧場을 비롯하여 全國名島嶼地方이 거의 牧場化되다시피 하였다가 壬辰倭亂의 참화와 明나라의 馬匹強要로 인하여 委縮되기 시작한 產馬는 國家의 흥망과 그 運命을 같이 하였는데 獸醫部門도 產馬의 消長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좌우되었던 것은 물론이나, 朝鮮朝 500年間에 있어서는 從來의 獸醫學을 포함한 實學과 技術賤視의 근본사상은 程朱學의 영향으로 더욱 심해지고, 모든 社會制度도 前近代의 封建制度가 그대로 답습되어 왔던 관계로 獸醫部門의 制度도 대체로 고려의 그것을 이어 받았지만 獸醫學이나 技術分野의 발전은 從未의 그것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 같다.

(1) 獸醫制度

李朝時代에 있어서도 馬政, 畜政에 관한 업무의 관장은 兵曹에 속하는 司僕寺가 馬政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獸醫가 司僕寺에 전속되어 말의 질병치료를 담당하였던 관계로 그 명칭을 “馬醫”라고 하였다. 太祖元年(1392) 官制改定때는 司僕寺에 獸醫의 定員이 기록되어 있지않고, 다만 太宗元年(1401)에 明나라 使臣이 馬匹을 요구하려 入國하였을 때 中國의 獸醫 2人을 帶同하였고 明에 보낼 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獸醫가 말을 선정하였다는 기록과 그리고 太宗 7年(1407) 世子가 明에 賀正使로서 明의 太子에게 선사하려는 말 50匹을 가지고 갈 때 總責任者로서는 上護軍이 임명되고, 그 밑에 養馬 2人과 馬醫 3人, 牽馬陪 7人으로 하여 押送했다는 기록이 있고, 또 그해의 議政府의 馬政에 관한 狀啓에는「各道에서 分養하는 國馬가 이병하였을 경우 항상 重態에 빠진 후에 理馬에게 報告하는 것이 常例이기 때문에 司僕獸醫가 치료하는데 때를 놓치는 것이 일수이다」한 것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司僕寺에는 理馬(正6品의 馬政官 주로 遞兒職)와 養馬라는 官職이 있었고「馬醫」라는 正式 명칭을 가진 獸醫는 그 밑에서 말의 鑑定과 치료에 종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2) 獸醫學術의 發展

李朝 定宗연간에 발간된 전기 新編集成馬醫方牛醫方이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最初의 獸醫關係의 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책명의 「新編」이라는 뜻은 그 이전에 이미 獸醫에 관한 方書가 中國의 것 그대로인지 또는 自由性을 加味한 것인지는 간에 행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다.

여하간 中國의 獸醫學이 馬師皇과 伯藥에서 비롯하여 隨·唐·宋을 거쳐 元代에 들어 와서 名獸醫 趙澤中에 의한 新刻馬經大全 明代의 農政全書中の 獸醫關係부분 그리고 淸의 喻本元兄弟의 元亨療馬集으로 이어지는데 그 내용은 거의 같은 것으로 보아 漢方獸醫學이 數千年의 연원을 가지면서도 그 내용에 있어서 별로 발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獸醫書籍은 전기한 新編集成馬醫方牛醫方的 발간을 계기로 하여 우리나라의 獸醫術이 우리나라의 學者들에 의해 學問的으로 성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冊의 內容도 전기한바와 같이 高麗의 경험方이 약간 첨가되기는 하였지만 거의 전부가 元의 馬經大全이나 明의 農政全書의 그것을 복사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元亨療馬集과도 內容에 別差異가 없는 것으로 보아 李朝時代의 獸醫學도 漢方獸醫學의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

더우기 李朝時代에는 抑佛崇儒와 崇明排淸으로 인한 程朱學의 영향으로 技術과 實學에 대한 賤視의 풍조는 더욱 심하여 이에 관한 학문과 기술이 전문적으로 발전할 여지는 거의 없었다. 다만 出世한 政治家나 이름있는 人文系의 學者들의 職務上의 관심 또는 副次的인 趣向에 따라 獸醫나 畜産에 관한 學問的인 노력이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들 學者나 정치가들은 순수한 의미에 있어서의 專門的인 獸醫學者도 아니고 더우기 技術者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와같은 學問的노력과 업적이 그 나름대로 貢獻을 하였고, 그 獸醫學的 知職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 곧 獸醫學者의 一員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實學者인 朴世堂이 그의 穡經속에서 鷄, 豚, 鵝, 鴨 등의 사육법을 논한 외에 增補山林經濟(柳重臨 1766)의 牧養篇, 朴趾源의 課農小抄中の 養牛法(1737-1805), 明宗9년(1554)에 초간되고 光海5년(1613)에 영인된 巧事撮要에는 新編馬醫方에서 발췌한듯한 獸醫方과 毛色의 分類에 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고 丁若鏞(1762-1836)의 牧民心書의 農政篇, 博物法의 養畜篇 등의 저술등도 그러한 것들이다.

그런데 獸醫의 專門書籍으로서로는 특히 中宗14(1541)에 王命으로 創刊되고, 仁祖4년(1626)에 每州牧에서 重刊된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은 전기 「新編集成·馬醫方牛醫方外에 證類本草·神隱方·山居四要·事林廣記 등에서 拔萃収録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家畜傳染病에 관한 最初의 專門書籍이 創刊되었고 仁祖年間에는 李曙가 종래의 新編集成馬醫方과 馬經大全 中에서 馬病에 관한 중요한 것을 拔萃한 「馬經診解」가 出刊되었는데 이 두 책은 한글해석이 붙어 있어 비로소 우리 學者들에 의한 우리말로 된 獸醫書가 出刊되어 진정한 뜻에서의 韓國獸醫學의 成立이라는 新紀元을 긋게 된 것이다.

(3) 巫卜의 獸醫術의 存續

原始時代로부터의 坐俗에 의한 疾病의 치료方法과 卜術乃至는 占星의 方法은 漢方의인 獸醫術과 함께 朝鮮朝에 있어서도 조금도 변경된 점이 없이 그 末葉까지 계속되었다.

太宗13年(1413) 禮曹에서 諸祭禮의 改定을 위한 狀啓에서 「馬祖·先牧·馬步·馬社 등은 「小祀」, 로 하자」고 한 것과 「司僕寺에서 巫覡(무는 女 覡는 男子무당)로써 馬神을 祭祀하게 하는 것은 淫祀임으로 馬祖·馬崇·馬社 先牧 등의 馬神에는 司僕官으로 하여금 祭祀를 울리도록 하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특히 말의 무병을 빌기 위해서 馬神에 제사하는 慣習은 馬祖壇이 없어진 李朝末의 甲午更張때까지 계속되었고, 때로는 무당(巫覡)을 시켜 祭官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卜占術은 물론 巫覡의 方法이 때로는 國家行事に 公公然이 응용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4) 裝蹄術의 創始

外國에 있어서의 裝蹄術은 상당히 오래된 것

이라고 추측되며 中国에서는 蹄鑽(제잠)이라는 명칭으로 遼東 瀋陽등지에서 일찍부터 사용되어 왔다고 한다.

그런데 增補文獻備考에 따르면 「옛적에는 蹄鐵이 없어 겨울에는 뿔으로써 말굽을 엮어 소의 집신(牛廐)같이 하였다」라고 하였고, 또 「세상에서 전하기를 尹弼商이(李朝成宗때의 영의정 戊午士禍때 賜死) 建州衛(南滿州에 있던 地名으로 女眞族을 정벌함) 정벌때 創造하였는데 말굽모양의 鐵片을 8개의 못(子鐵·蹄釘)으로 박아 固定하여 氷上에서도 잘 걸을 수 있게 하여 이로 부터 蹄鐵이 普乃되고 그 이름을 代葛(대갈)이라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世傳 尹弼商 征建州時 地凍水滑馬不得着足 弼商 以意製造 用鐵片圓如馬蹄(中略) 人皆便之曰 代葛)

1479년 相臣으로서 都元帥가 되어 征伐軍을 지휘하였던 尹弼商이 이것을 發想 創案하였을것이라 함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며 그 後 韓國式의 裝蹄術이 獨自的으로 발달한 것으로 추측된다. 李朝時代에 있어서 裝蹄師는 물론 鍼術을 兼하여 牛馬의 治療에도 종사하였는데 韓國獸醫技術上 하나의 중요한 발전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밖에 女眞族의 流浪民들은 一定한 居處와 직업이 없이 牛馬의 노략질을 일삼다가 나중에 家畜 도축을 직업으로 삼았던 禾尺과 白丁들이 古代 西洋에 있어서처럼 裝蹄師와 더불어 家畜 치료에도 관여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6) 現代獸醫學術의 輸入과 傳統獸醫學術의 斷切

古代 西洋에 있어서도 家畜의 치료는 巫呪의 迷信的方法으로 行하였다는 것은 東洋과 다를 바가 없으나, 現代醫學은 BC 2300년에 希臘의 Hippocrates의 醫說이 기초가 되어 성립된 것이지만 獸醫部門에 있어서 現代의인 學問과 技術의 成立과 발전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인 1762년 불란서의 Lyons에 獸醫學校가 세계 최초로 설립된 때부터이며 이것이 보편 적으로 보급되기는 19세기에 들어와서 부터이다.

日本은 소위 明治維新後 諸政을 刷新하고 현대화작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불란서보다 100여년이 늦은 1872년(明治5年)에 다른 部門의 현

대적인 學校와 더불어 獸醫學校를 설립 하였으며 大韓帝國을 침략하던 1900년 대초기까지 약 30年間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朝鮮朝는 高宗31년(1894) 甲午更張을 계기로 하여 政治 文化와 더불어 社會 經濟의인 在來의 制度와 慣習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獸醫部門에 있어서도 종래의 近古代적인 方法과 慣習이 改廢되기 시작하였다. 전술한 馬祖壇의 철폐같은 것이 그 한 예이다.

甲午更張 2년후인 1897년에 朝鮮朝는 國號를 大韓帝國으로 고치고 年號로는 光武를 사용하였다.

光武 9년(1905)에 日本은 乙巳保護조약을 구실로 실질적으로 韓國을 지배하게 되면서, 융희 2년(1908)에는 獸醫學教育기관으로서 水原官立農林學校에 獸醫速成科가 설치되고 勸業模範場畜産部(1906)에는 家畜의 歐美改良種들이 처음으로 수입되는가 하면, 이듬해인 융희 3년(1909)에는 지금의 家畜衛研究所의 前身인 輸出牛檢疫所를 설치하고 동시에 수출우검역법과 屠獸規則등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이제까지 韓國에서 流行하던 여러가지 傳染病에 對한 명칭도 통일되지 않고 그 상황도 불분명하던 것을 光武 9년(1905)에 日本의 時重博士의來韓調査로 牛疫, 炭疽를 비롯한 氣腫疽·流行性驚口瘡의 存在가 확인되고 1907년부터는 각종 전염病에 대한 통계도 비로소 작성되기 시작하였다(朝鮮農業發達史 朝鮮農會)

이후 日本에 의한 西歐 現代 獸醫學과 技術이 보급되고 獸醫制度가 진행되어 他意에 의한 獸醫界의 現代化과정에 들어간 것이다. 당시의 韓國에 있어서는 家畜의 改良과 增殖보다는 우선 獸疫의 防除를 비롯한 衛生部門이 焦眉의 急務이었던 관계로 獸醫와 畜産은 분리되지 아니하고 獸醫學을 전공한 人士들에 의하여 獸醫를 비롯한 모든 畜産分野의 업무가 관장되었던 것이다.

이러므로써 在來의 수천년 이래의 傳統的 獸醫學과 技術은 鱗片조차도 계승됨이 없이 用語를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忘却되고 버려지고, 斷絶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같이 他意에 의하여 발족한 우리나라의

現代獸醫學은 1945년 日本 敗亡과 동시에 日本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自体内の 学者와 專門 高級技術者의 缺乏에다 日本은 물론, 外國의 學問的 技術的 交流가 거의 끊기고 社會의 부패와 혼란속에서 6·25동란을 전후한 10년 内外間의 孤立과 暗黒期를 경과한 후에 1950年代 후반부터 이번에는 美國을 통한 西洋獸醫學과 기술이 殘存한 日本式西洋獸醫學의 기초 위에서 發展하고 있을 뿐 朝鮮朝 以前의 傳統의 獸醫文化는 여전히 埋沒된 채로 放置되어 있다.

7. 要約

(1) 原始時代(先史時代)의 獸醫術

사람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家畜이 있는 곳에 그 疾病이 있고 이것을 치료하려는 생각은 原始時代의 사람들도 갖고 있었다. 그 方法은 桓雄說話나 Shamanism에서 보는 바와 같은 巫呪의 方法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民俗과 마찬가지로이다.

(2) 三國時代의 獸醫學과 術(胎動期)

이 時代에 漢文이 들어 오고, 佛敎가 傳해 짐에 따라 漢方獸醫學과 印度醫說에 따른 僧獸醫學의 영향으로 특히 理論的인 獸醫學과 技術이 胎動하고 특히 中期以後에는 高句麗의 僧 惠慈와 百濟의 阿直岐같은 人物이 輩出되어 獸醫과 畜産(養馬)技術을 日本에 移植할 수 있는 단계에 까지 발전하였다.

(3) 高句麗獸醫學의 自主的發展

陰陽五行說과 本草學의 기초를 둔 漢方獸醫學에 영향을 받아 발전한 三國時代獸醫學과 術은 종래의 巫呪의인 方法과 함께 高麗에 계승 발전하면서 이것이 制度化되고 自主化하기 시작하였다.

印 獸醫라는 말은 周禮에 나오는 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高麗時代에 처음으로 獸醫 또는 獸醫博士라는 用語가 사용되고 制度化의 단계에 이르는가 하면 日官의 卜術이 公公然하게 응용되었다.

그 간 外來의 學術에만 의존하였던 從來의 獸醫學과 技術은 麗末鮮初의 政治家까지 醫術에도 능통하였던 權仲和를 비롯한 여러 學者들에

의한 新編集成馬牛醫方의 創刊과 獸醫에 관한 東人經驗方이 첨가되었다는 것은 高麗末期의 獸醫學의 自主化的 發展을 意味한다.

(4) 李朝時代의 韓國의 獸醫學의 成立

李朝初期에 있어서 高麗時代의 獸醫學의 知職을 前記 牛馬醫으로 集大成하여, 自主化하기 시작한 우리나라 獸醫學은 中宗·仁祖年間에 牛馬 猪疫病治療方과 馬經診解라는 한글로 설명한 獸醫書가 出刊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韓國獸醫學이 성립되고 一般化하기 시작하는 한편 朴世堂 등의 實學者들의 저술에 의한 獸醫知職의 보급을 보았고 朝鮮朝初期에는 尹商弼에 의한 裝蹄術의 發明이 있었다.

한편 土俗의인 巫呪 卜術등의 迷信의 方法도 民間에서 계속 행하여졌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技術과 實學賤視의 思想은 程朱學의 영향으로 더욱 심해진 여건하에서 獸醫學이 發展할 여지는 거의 없는 가운데 一部 學者나 政治家들에 의한 副次的인 獸醫學的 知職 조차도 實際的인 獸醫技術과는 항상 유리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5) 現代獸醫學의 輸入과 傳統의 斷切

日本의 韓國侵略에 따른 韓國文化말살정책으로 獸醫分野에 있어서도 甲午更張(1895)에 의하여 종래의 제도와 方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후 日本式西歐獸醫學과 技術이 輸入됨에 따라 종래의 獸醫學이나 技術의 傳統은 완전히 斷切되고 忘却되고 말았다.

1945년 日本勢力이 물러가고 곧이어 動亂의 참화를 입게 된 약 10년間은 學者와 專門家의 不足, 外國과의 交流의 社絶로 인한 暗黒期를 거친 다음 美國을 통한 西洋獸醫學이 殘存한 약간의 日本式西洋獸醫學의 기초위에서 새로운 면모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